



레오나르도 다빈치 <동방박사의 경배>

그림의 전경은 성모자와 그에게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삼각형 구도로 그려져 있어 안정적이다. 이들 외에도 계단을 오르거나 건물의 아치형 입구를 서성이는 인물, 앞다리를 들어 올리고 서 있거나 팔딱팔딱 뛰거나 서로 싸우는 말, 멍하니 앉아 있는 낙타 등이 보인다. 이들이 취한 자세는 기존 대가들의 작품에서 나온 자세를 본뜬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새로이 관찰한 것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.